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주] 화인베스틸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주] 화인엔터네셔널
부산시 사상구 경정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rea.com>



[주] 동일틸렉스(주)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Vol. **93**
2026. 08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 임준구 회장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

Sports is Busan
2026 북중미 월드컵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8월 14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9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8 Vol. 93



열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 임준구 회장
08	금빛 훈련일지 해강고등학교 요트부
12	부산체육을 잇다 북구체육회
16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

20	Sports is Busan 2026 북중미 월드컵
24	스포츠&테크놀로지 '응원'에서 '참여'로, 팬덤의 진화 기술이 만든 스포츠 팬덤의 시대
28	스포츠&웰니스 폭염 속 운동 안전수칙
30	부산체육 DNA 부산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34	스포츠 기자단 -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 2026 부산스포츠클럽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
38	종목 소개 철인3종
42	스포츠&컬처 전시 <워너 브롱크호스트 부산전>

44	BSC 뉴스 - 2026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 2026년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진행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 및 2026 스포츠 인권 교육 개최
48	회원단체 소식
52	센터 info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6	부산체육 퀴즈

기록보다 완주에 의미를 두고 참여해보세요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 **임준구** 회장

철인3종 저변 확대를 위해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직접 대회 출전을 목표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는 임준구 회장.

의사이자 협회장으로서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철인3종에 참여하여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마라톤으로 시작된 철인3종과의 인연

임준구 회장이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건 10여 년 전의 일이다. 평소 꾸준히 마라톤을 즐겨하던 그를 눈여겨보던 친구가 협회 부회장직을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철인3종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물론 협회를 떠난 이후에도 철인3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다. 나이 60에 접어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도 철인3종이었다. 달리기나 자전거와 달리 수영은 따로 배운 적이 없어 초급자 코스부터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또한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았다. 다시 협회로 돌아와 회장을 맡게 된 것도 이즈음이다.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



“철인3종 올림픽 코스에 참가하려면 수영부터 정복해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준비하던 차에 박찬호 감독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인3종 1세대 선수 출신이자 관련 학위까지 받은 분이니 당연히 큰 도움이 됐죠. 제가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던지 먼저 협회장직에 대한 얘길 꺼내시더군요.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회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후 병원으로 출근해 급·만성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하루는 달리기, 다음날은 자전거를 타는 식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는 건 수영이다. 내년에 철인3종 올림픽 코스에 도전하려면 수영만 1.5km를 완영해야 하는데 늦깎이에 수영을 접한 만큼 생각보다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젊은 시절 함께 마라톤을 뛰던 친구들은 진작에 철인3종으로 종목을 전향해 활발하게 대회에 나가고 있어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지만 급할수록 어깨에 들어

간 힘을 빼고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체력 단련에 임하고 있다.

철인3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회의 노력

임준구 회장이 환자들을 만나는 진료실 밖 한편에는 철인3종 대회 일정표가 걸려있다. 협회장으로서 대회 참가자들을 챙기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일정을 표시해둔 것이다. 협회에서는 부산 철인3종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과 미래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한 일에 매진한다.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철인3종에 제격인 해양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엔 철인3종의 대중화를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았던 ‘부산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가 대표적이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는 매년 5월 화명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입문자용 대회다. 기록보다는 천천히 자연을 즐기며 완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철인3종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평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철인3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슬로우 철인3종은 실제 참가한 사람들의 후기가 좋아서 철인3종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영-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는 ‘아쿠아슬론’ 대회를 개최해 어린이들이 쉽게 철인3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철인3종을 접하게 해야 저희도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철인3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빼곡하다. 협회가 주도하는 사업 외에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클럽과 협업하여 연합훈련을 열거나 친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누구나 쉽게 철인3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인3종 출전을 위한 체력관리 비결은 운동의 루틴화

본업이 의사인 만큼 임준구 회장은 평소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의 답변은 늘 같다. 꾸준히 운동하라는 것. 하루 24시간 중에 단 한 시간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본인의 하루 루틴으로 만들라는 것. 그 패턴이 몸에 익으면 운동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과가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우리 병원에는 주로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대부분의 통증이 근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근력은 자연 소실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이지요.”

그는 지난 2003년 마라톤에 입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오는 11월 개최되는 마라톤 폴코스 완주를 목표로 아침저녁으로 더욱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루틴을 유지해야 마라톤은 물론 철인3종 경



기에서도 힘에 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철인3종협회장으로서의 건강과 체력 관리에 솔선수범하는 삶의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올해 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협회장으로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허민호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 그리고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철인3종 선수들이 최대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내년 출전 예정인 철인3종 경기에서 첫 관문인 1.5km 오픈워터 수영(바다·호수 등 자연 수역에서 하는 수영)을 무사히 완영하는 것. 이를 위해 그는 매일 아침 수영으로 하루를 깨우고 있다.

“수영, 자전거, 달리기 세 가지 종목을 통과해야 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 또한 상당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느 한 종목에 먼저 입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전신 근력 운동 효과와 더불어 심장, 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라서 더 높이, 더 멀리 세계 무대를 향한 거침없는 항해

해강고등학교 요트부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배출하며 요트 종목에서 명성이 자자한 해강고등학교 요트부. 현재 3명의 최정예 선수들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가 있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선수들과 그런 그들이 오래도록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조경훈 지도자를 만났다.



세계 무대 경험이 성장의 디딤돌

해강고등학교 요트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며 전국적 위상을 떨치고 있다. 2020년에 조경훈 지도자가 부임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현재 3학년 백가연 선수, 2학년 김선우, 최준환 선수 등 총 3명의 선수가 윈드서핑(IQFoil) 종목에서 활약 중이다.

“해강고등학교는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2023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유스 세일링 월드 챔피언십’에 우리나라 남녀 국가대표로 본교 선수들이 선발되어 출전하였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은 청소년부에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무대라 무척 뜻깊었습니다.”

조경훈 지도자는 세계 무대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스 세일링 월드 챔피언십을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로 꼽았다. 그의 말처럼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해강고등학교 요트부 선수들은 경기를 대하는 시야가 넓어졌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등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선수들은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일본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내는 성과를 얻었다. 해강고등학교 요트부는 두 대회를 위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본기가 곧 기술로

해강고등학교 요트부는 주로 ‘모의 레이스’ 형태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스타트, 방향 전환, 경기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 파도의 높이와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요트 경기에서 순위를 결정짓는 건 스타트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모든 선수가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면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 레이스 훈련으로 스타트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맞서 요트를 컨트롤해야 하기에 근력, 코어, 밸런스 운동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오늘날 해강고등학교 요트부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기에 중점을 둔 조경훈 지도자의 훌륭한 지도가 있었으며, 그에 못지않게 선수들 간의 피드백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선수들끼리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알려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선수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뜻을 잘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조경훈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성적이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릴 적 요트 종목 선수로서 세계 무대에 서는 것을 꿈꾸었다는 조경훈 지도자. 자신이 부상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기에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 “IQFoil은 시속 55~65km가 나올 정도로 빠릅니다. 빠른 속도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또, 요트 종목의 특성상 해가 떠 있고 바람이 불어야 훈련이 가능한데 여건이 따라주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상을 당하면 해상 훈련을 못 하는 날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의 기량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부상에 유의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조경훈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어느 순간 무서운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선수들을 걱정하고 있다.

- “저희 선수들이 승부욕이 강합니다. 선수로서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상 걱정에 늘 노심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수들이 당장의 결과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속도로 성장해서 훗날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요트 10년, ‘국가대표’라는 결실

초등학교 때 오빠를 따라 요트 종목을 시작했다는 백가연 선수. 처음에는 요트를 타는 게 너무 힘들었으나 타면 탈수록 재밌었고 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빠르게 달리는 매력에 빠졌다. 그렇게 8년 정도 딩기 종목을 타다가 IQFoil 종목으로 전환한 지 2년. 요트를 탄 지 어느덧 10년이 된 그는 최근 202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 “국가대표 선발이 확정되었을 때 부모님께 보답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최소 3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백가연 선수는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 중에서 중국 쑤야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안비치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유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백가연 선수는 풍상으로 주행할 때 앵글을 높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요트의 앞머리를 돌림으로써 바람과 요트의 각을 좁히면 직선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리고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 “크로스핏을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있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제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의 동력

최준환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대부분의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고 한다. 그의 운동신경을 알아본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요트를 시작했다.

- “자연에서 하는 운동이라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 속도가 빨라서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포일이 떴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는데, *포일을 유지하게 된 순간 힘들었던 시간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최준환 선수는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가 기억에 남는데, 역시나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대회에서 경기를 치르는 동안 스타트, 코스 탈 때 경기 운영, *펌핑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감각을 익힐 수 있었어요. 저는 올해 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첫 대회 때까지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최준환 선수는 풍상 코스에서의 자세와 방향 전환을 신경 쓰고 있는데, 두 선수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또, 혼자자 아나라 함께라서 ‘파이팅’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으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요트가 재미있는 이유, ‘변수’

중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요트를 타게 됐다는 김선우 선수. 파도, 바람 등 요트는 변수가 많아 힘든 스포츠인데, 김선우 선수는 그게 또 요트의 매력이라고 한다.

- “매일매일 다른 컨디션인 상황을 마주한다는 게 힘들지만, 그걸 극복해 내고 요트를 제대로 탔을 때 느끼는 재미가 훨씬 커요. 계속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도 느껴지고요.”

김선우 선수는 기억에 남는 대회로 국가대표 선발전이기도 했던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를 꼽았다.

- “부담감 때문에 대회를 망치고 나서 정신, 심리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는 지난 경기에 신경 쓰기보다 매 경기를 첫 경기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둔 김선우 선수는 훈련과 재화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목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목 부상 외에도 종종 몸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비롯해 조경훈 지도자, 동료 선수 등의 격려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며 자신을 응원해 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선우 선수는 단기적으로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이며, 훗날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포일: 보트 하단에 달린 날개로, 물을 분리해 부력을 만들어 선체를 떠오르게 하는 장치

* 펌핑: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바람을 활용해 보트의 추진력을 높이는 동작



최준환 선수

김선우 선수

백가연 선수

체육문화 활성화로 활력은 더하고 행복은 높이고!

북구체육회



생활체육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다. 북구체육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운동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Q. 북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북구체육회는 ‘건강한 구민,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 추진 및 지역 체육계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설립 이후 1999년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쳐 2016년 북구체육회로 통합 창립되었습니다.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선 1기 체제를 출범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민선 2기 김성호 회장이 취임하여, 부회장 7명, 이사 41명,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 18명으로 구성된 대의원과 함께 체육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행정·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은 사무국장,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4개 회원종목단체, 255개 클럽, 9,000여 명의 동호인이 북구체육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북구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 연령의 구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체육교실,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특화체육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등이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생활체육교실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은 아침저녁 시간에 가까운 공원이나 생활공간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체육교실 및 청소년체련교실 등은 아이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장수체육대학 역시 선호도가 높습니다. 신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은 구민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해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며 주말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구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모습을 보며 생활체육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Q. 북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회원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여러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북구축구협회를 꼽고 싶습니다. 북구축구협회는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동호인들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북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여러 대회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47년을 시작으로 매년 8월 개최되는 ‘광복기념 북구축구대회’는 가장 북구다운 고유한 정신을 지닌 대표적인 체육행사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는 어울림의 자리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북구체육회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회원종목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북구청 및 지역 유관기관들과 행정·재정적 협력을 논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대상의 체육행사나 복지 연계 사업 추진 시 장소지원, 홍보협조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회원종목단체 역시 중요한 동료입니다. 체육회는 행정지원과 사업운영, 안전관리 등

MINI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북구체육회 회장 김성호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민선 2기 북구체육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지역 체육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종목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북구체육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체육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체육회는 단순히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넘어, 구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생활체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구체육회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턱은 낮게, 혜택은 골고루’라는 가치 아래 누구나 함께하는 포용적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북구 구민이 소외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함께 모이고 함께 웃는’ 화합과 상생의 현장 중심 체육

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기업·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체육을 매개로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북구를 넘어 부산체육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체육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가장 뜻깊은 순간은 체육활동을 통해 웃음과 활력을 되찾는 구민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스포츠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체육이 가진 힘을 다시금 느끼며, 북구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크게 느낍니다. 북구체육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체육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구민, 행복한 북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 지원하고, 각 종목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북구체육회가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체육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구성원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체육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구민과 회원단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변함없는 애정으로 북구체육회를 응원하고 함께 해주신 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체육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구민의 일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노력, 바벨로 들어 올린 꿈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9개의 메달을 휩쓸며, 그간 땀 흘린 노력을 결과로 증명했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묵묵히 앞을 보며 달려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마음으로 만든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과

부산체중 역도부를 이끌고 있는 현재는 지도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역도를 시작했다. 6년 전 부산체중에서 첫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 “부산체중 역도부는 2013년 창단되었어요. 현재 1학년 6명, 2학년 2명, 3학년 4명 등 총 12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 선수가 7명으로 좀 더 많은 편이구요.”

박배용 감독은 지난 5월 소년체전 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가 기특하다고 말했다.

➤ “소년체전 때 너무 애쓰고,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12명 모든 선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3학년 김민승 선수가 훈련 때 들어본 적 없는 무게를 소년체전 인상·용상 종목에서 모두 성공해 상당히 놀랐어요.”

현재는 지도자에게 지난 5월 소년체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도자로 활동한 전체 기간 중에서 이번 대회가 최고의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김민승, 왕서영 선수는 각각 인상·용상·합계를 모두 석권해 대회 3관왕이 되었다. 여기에 조서는 선수가 금·은·동 메달을 1개씩 추가하면서 무려 9개의 메달을 따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소년체전 준비 기간 동안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한 선수들의 노력에 더해, 학교·체육회의 여러 지원이 있어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 “교장 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재활 전문 선생님이 배정되었어요. 선수들이 부상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적절한 물리 치료도 병행하면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소년체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심리적 문제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 두 명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해 주셨어요. 이 또한 교장 선생님이 체육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민승 선수(3학년)

Q. 역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원래 유도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유도를 하다 역도부 선생님께서 발탁되었어요. 오랫동안 유도를 했지만 역도가 제 운명이었는지 이상하게 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웃음) 둘 다 근력이 중요한 운동이지만 힘을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Q. 소년체전 때 기억에 남는 순간

용상 마지막 경기에서 115kg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제가 훈련할 때는 해 본 적이 없는 무게였는데, 선생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뻐던 순간이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Q.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경험

작년에 무릎 연골 부상으로 3~4개월 정도 운동을 못 했어요. 아픈 게 나아지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얼른 학교에 돌아가서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Q. 나의 강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힘과 스피드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팔이 길고 손이 큰 편이라 역도에 유리한 신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Q. 가족,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경기장에 응원하러 와 줘서 큰 힘이 돼요. 형은 군인이라 자주 못 오지만, 누나는 거의 빠짐없이 와 줬던 것 같아요. 부산체중 친구들도 항상 경기 때마다 큰 소리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늘 고마워요.

취재차 방문했던 7월 29일에는 8월 6일~13일 충남 서천에서 열리는 ‘제12회 한국중고 역도선수권대회’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옛되지만 다부진 얼굴로 바벨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멋졌다. 마지막으로 박배용 감독, 현재는 지도자에게 앞으로의 역도부 운영 계획을 각각 물었다.

“선수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 없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상 실적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과 책임감 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운동하는 데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왕서영 선수(3학년)

Q. 역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도 민승이처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역도를 시작했어요. 부산체중 일반부에 있다가 역도부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입문하게 되었어요.

Q. 나의 강점

저는 또래 선수들에 비해 정신력이 강한 편이에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잘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목표만 생각하고 실행해요. 역도부 선생님도 칭찬해주는 점이고요.

Q. 역도의 매력

역도는 선수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하루하루 기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동기가 부여되고, 기록이 깨질 때마다 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Q. 가족 중 역도 선수가 있다는데

여동생이 남산초등학교에서 역도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훈련 때는 동생도 부산체중에 와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동생과 같은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에서 역도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다른 자매들처럼 뭐 먹을지 고민하거나,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주로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 다투는 일은 거의 없어요.

Q.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부상 없이 훈련 잘하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주요 입상

- 202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3
- 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1
- 202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3
-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6
-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3, 🥈 5, 🥉 1
-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4, 🥉 2
- 2025년 전국중등부역도경기대회 🥇 3, 🥈 3, 🥉 3
- 2025년 한국중고연맹회장기역도경기대회 🥇 5, 🥈 5, 🥉 3
- 2026년 전국춘계남여역도경기대회 🥇 5, 🥈 4, 🥉 3
- 202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7, 🥈 1, 🥉 1



전 세계인의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자료 출처: FIFA·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39일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참가국 또한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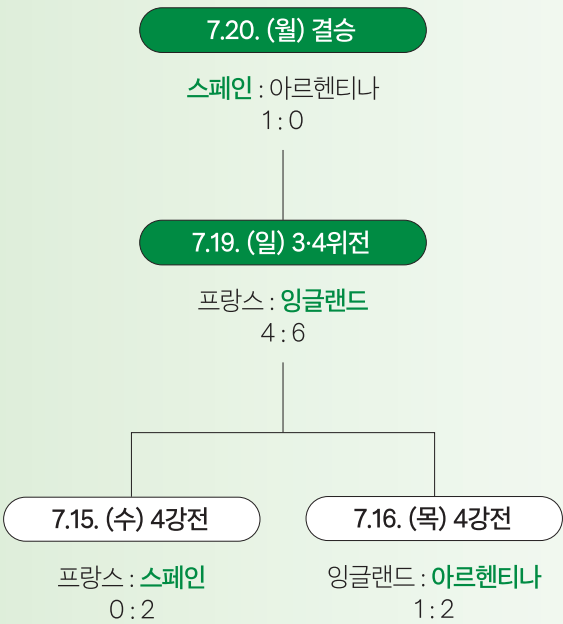
북중미 월드컵 돌아보기

이번 월드컵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약 32년 만에 북중미 대륙에서 개최된 대회로, 참가국 확대에 따라 대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조별리그는 기존 8개 조에서 12개 조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총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확대됐다. 각 조 1·2위에 오른 24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직행했으며, 각 조 3위를 기록한 12개 팀 중 성적이 높은 8개 팀이 추가로 합류해 총 32개 팀이 토너먼트를 치렀다. 대한민국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인범의 동

점골, 오현규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이어 패하며 32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4강에 진출했으며, 7월 20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으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다.

※ : 32강 진출 팀

A조 멕시코 · 남아프리카공화국 · 대한민국 · 체코	G조 벨기에 · 이집트 · 이란 · 뉴질랜드
B조 캐나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카타르 · 스위스	H조 스페인 · 카보베르데 · 사우디아라비아 · 우루과이
C조 브라질 · 모로코 · 아이티 · 스코틀랜드	I조 프랑스 · 세네갈 · 이라크 · 노르웨이
D조 미국 · 파라과이 · 오스트레일리아 · 튀르키예	J조 아르헨티나 · 알제리 · 오스트리아 · 요르단
E조 독일 · 퀴라소 · 코트디부아르 · 에콰도르	K조 포르투갈 · 콩고민주공화국 · 우즈베키스탄 · 콜롬비아
F조 네덜란드 · 일본 · 스웨덴 · 튀니지	L조 잉글랜드 · 크로아티아 · 가나 · 파나마



경기 규정의 변화

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Hydration Breaks) 도입

기존에는 전·후반으로만 진행되던 경기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처음 도입됐다. 전·후반 각각 22분이 지난 시점에 약 3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선수들은 이 시간 동안 수분을 보충하고 체력을 회복한다. 감독과 코치진도 이 시간을 활용해 선수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② 경고 누적 규정 완화

경기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고 누적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과정에서 옐로카드 2장이 누적된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으며, 누적된 경고 기록은 8강 이후 초기화됐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8강 종료 시점까지 치르는 경기가 기존 5경기에서 6경기로 늘어나면서 FIFA는 옐로카드 초기화 시점을 조별리그 종료 후와 8강 종료 후 두 차례로 나눴다.

③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 도입

경기 진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로인과 골킥에 5초의 시간 제한이 적용됐다. 스로인을 5초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상대 팀에 소유권이 넘어가며, 골킥 역시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대 팀에 코너킥이 주어진다. 선수 교체도 10초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교체되는 선수가 10초 안에 경기장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교체 선수 투입이 1분간 지연되며, 해당 팀은 그동안 10명의 선수로 경기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진의 처치를 받은 선수는 1분 동안 필드 밖에서 대기해야 하며, 골키퍼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 필드 플레이어는 벤치 앞 테크니컬 에어리어 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경기 중 작전 타임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④ 오프사이드 판정 방식 개선

오프사이드 판정에는 새로운 반자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보다 10cm 이상 앞선 위치에 있을 경우 부심에게 실시간 음성 신호가 전달되며, 인공지능(AI) 기반 3차원(3D) 선수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공격수와 수비수의 움직임을 3차원 아바타 형태로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중들도 방송 화면을 통해 판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북중미 월드컵의 상징과 K-컬처의 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대회의 규모와 의미가 담긴 마스코트 트리오는 선보였다. 먼저 클러치 더 볼드이글(Clutch the Bald Eagle)은 미국의 상징 대머리독수리를 형상화해 전역에 자리한 다양한 문화를 모두 포용한다는 뜻을 담았다. 자유 더 재규어(Zayu the Jaguar)는 멕시코 남부지역 정글에서 온 아메리카 표범으로, 멕시코의 풍요로운 자연 및 유산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메이플 더 무스(Maple the Moose)는 캐나다 전역을 누비는 북미산 큰사슴을 표현해 사 람들과의 유대감, 캐나다의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을 상징한다. 특히 이번 월드컵의 시작과 끝에서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12일 멕시코시 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계 싱어 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함께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Goals’ 무대를 펼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미국 뉴저지에서 펼쳐진 결승전에서는 사상 최초로 하프타임쇼가 개최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는데, K팝 보이그룹 BTS 멤버들이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스타들과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Dynamite’를 선보이며 월드컵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북중미 월드컵이 남긴 것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로 꼽히던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예상 밖의 결과를 잇따라 만들어내며 축구팬들에게 짜릿한 순간을 선사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역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회 첫 해트

트릭(한 경기에서 3골 이상 기록)을 달성하며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이번 대회는 총 104경기에서 308골이 터지며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흥행 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북중미 월드컵은 150억 달러(약 22조 650억 원)가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체 경기 관중 수는 681만 966명으로 집계돼, 종전 월드컵 최다 관중 기록인 1994년 미국 월드컵의 358만 7,538명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30년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30년 대회는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이 공동 개최하며, 월드컵 100주년을 맞은 점을 고려해 100년 전 초대 대회 개막전이 열린 우루과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서로 각각 한 경기씩 기념 경기가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응원’에서 ‘참여’로, 팬덤의 진화

기술이 만든 스포츠 팬덤의 시대



한때 스포츠 팬의 역할은 응원에 머물렀다.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거나 TV 앞에서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팬과 선수, 구단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했고, 팬은 경기를 소비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지금은 다르다. 스포츠 팬은 선수, 구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팬이 되는 시대

과거 팬덤의 중심은 경기장이었다.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 눈앞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팬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OTT 플랫폼의 발달로 팬들은 장소의 제약 없이 경기를 즐긴다. 이동 중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시청하고, 태블릿으로 선수 기록을 확인하며, 스마트워치로 경기 시작 알림을 받는다. 시간과 거리, 비용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팬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실시간 연결’이다. 경기 중 SNS에 해시태그 하나만 검색해도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경기장 안에서만 함께 응원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수만 명이 하나의 응원석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국내 팬들은 거리 응원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채팅, SNS 실시간 응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경기를 즐긴다. 이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응원의 열기로 하나로 연결되는,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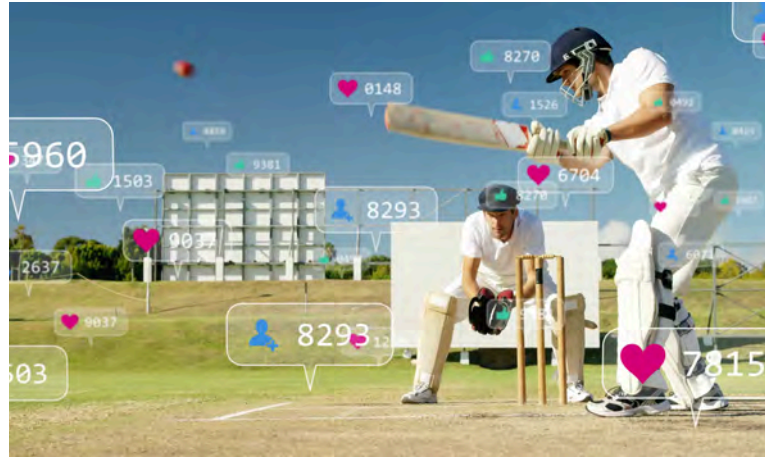
팬덤의 공간적 경계가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다.

데이터 소비를 넘어 분석하는 팬으로

스포츠 과학 기술이 바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팬들의 ‘관람 수준’이다. 예전에는 “오늘 잘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정도의 감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팬들도 데이터를 읽고 이야기한다. 야구 팬들은 투수의 회전수와 구속 변화를 분석하고, 축구 팬들은 기대득점, 볼 점유율, 압박 성공률 등을 비교하며 경기를 평가한다. MLB의 스탯캐스트(Statcast)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투구의 회전수, 타구 속도, 발사각, 수비범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팬들의 분석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 팬들은 단순한 응원보다 ‘왜 이 선수가 좋은가’를 데이터를 통해 설명한다. 팬덤이 정보와 분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발전 중인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로 진화한 팬덤

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팬을 콘텐츠 소비자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로 변화시켰다. 과거 스포츠 콘텐츠는 주로 방송사와 언론에 의해 생산되었고, 팬들은 이를 시청하고 즐기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팬들도 손쉽게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경기가 끝난 직후 팬들은 인상적인 장면을 편집한 숏폼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선수들의 활약을 담은 팬아트와 밈, 응원 영상을 제작해 빠르게 확산시킨다. 특정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거나 해설하는 팬 제작 영상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팬덤 문화의 창작 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팬들은 AI를 활용해 응원 포스터를 제작하고, 선수의 명장면을 새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하거나, 경기 하이라이트에 자신만의 해설을 더하는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현대의 팬들은 더 이상 스포츠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제작자로 바뀌고 있다.

SNS로 가까워진 팬과 선수

과거에는 선수와 팬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팬 사인회나 경기 후 짧은 만남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거리를 좁혔다. 선수들

은 SNS를 통해 훈련 모습과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은 댓글과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소통한다. 구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커룸 영상, 훈련 비하인드, 선수 인터뷰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구단들도 자체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선수들의 비하인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팬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팬덤은 이제 경기 당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지속되는 관계가 된 것이다.

팬덤, 구단을 움직인다

팬덤의 변화는 응원을 넘어 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여러 스포츠 구단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팬 투표를 진행한다. 올스타 선수 선정은 물론 경기장 응원곡 선정, 이벤트, 유니폼 디자인 등에 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일부 구단은 스포츠 팀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팬 토큰(Fan Token)을 활용해 구단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팬은 더 이상 구단의 고객이 아니라 함께 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국을 붉게 물들였던 ‘붉은 악마’처럼 한국 스포츠 팬덤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다. 그 시절 거리에서 하나 되어 외치던 응원의 함성은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응원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선수와 팀을 응원하며 연결되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미래의 팬덤은 결국 더 많은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는 ‘확장된 팬심’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오늘도 운동하시나요?

폭염 속 운동 안전수칙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공원과 산책로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평소처럼 운동한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높은 기온과 습도 속에서는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여름철 운동 안전수칙을 알아두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더운 시간은 피하고, 운동도 가볍게

여름철 운동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시간대다.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체감 온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기온이 비교적 낮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을 선택하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운동 강도도 조절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속에서 운동할 때에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10~30% 낮추고, 운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무더위 속에서는 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강도의 운동은 쉽게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은 자주, 휴식은 충분히

폭염 속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운동기구가 아니라 물병이다.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동 전부터 충분한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온음료를 섭취해 미네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는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운동해야 한다면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쉬는 것도 중요한 안전수칙이다. 공원의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해 몸의 열을 식혀야 한다. 잠깐의 휴식이 체온 상승을 막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복장도 여름철 운동 시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다. 밝은색의 얇고 헐렁한 옷이나 기능성 운동복은 열 흡수를 줄이고 땀 배출을 도와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다. 낮 시간 운동이 불가피하다면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운동 계획을 과감히 미루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다. 운동 중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119의 도움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건강은 무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키는 것이다. 외출하기 전, 기온을 확인하고 물 한 병을 챙기는 습관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올여름에는 운동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운동 습관으로 폭염도 건강하게 이겨내 보자.

폭염 속 지켜야 할 안전 운동 수칙

- ☐ 운동 강도를 평소의 10~30%로 낮추고, 1시간 이내로 운동하기
- ☐ 뜨거운 한낮을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기
- ☐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주 휴식하기
- ☐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 ☐ 밝은색의 얇고 헐렁한 옷이나 기능성 운동복 입기
- ☐ 낮에 운동할 때는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 ☐ 폭염특보 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기

부산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바다를 터전 삼아 성장을 거듭해 온 도시 부산이 이제 해양산업의 거점이 되어 진정한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산업 경쟁력 고도화의 한 축

부산광역시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제4차 해양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으로, 해양산업의 현황과 대내외 여건,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부산 해양산업 육성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진’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해양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산업 구조 혁신과 전략 기능 재편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산시는 7대 분야, 22개 추진전략, 48개 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총 6조 7,469억 원(국비 1조 6,724억 원, 시비 1조 1,628억 원, 민간 3조 9,1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와 전략은 해운·항만물류, 해양금융, 해양환경·안전,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등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각 분야는 상호 연계되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 해양산업은 행정·산업·금융·사법·기반 시설(인프라)이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분야는 ‘세계로 향하는 해양레저 관광도시’, ‘혁신과 산업이 성장하는 해양레저 산업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바다일상 문화도시’라는 3개의 추진전략 아래 부산형 마리나 거점화 마스터 플랜 수립, 해수면 마리나 시설 고도화 등 16개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설계

부산광역시는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일보, 부산 MBC, 부산 중구청,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부산 해양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 이재형 교수의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마리나 기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관련 사업의 현황부터 향후 대비해야 할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부산은 이미 부산항, 조선업, 자갈치시장 등 어업과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역동적인 도시였다. 2025년 기준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연간 1억 명을 돌파하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이 국내 여름 휴가지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등 여전히 ‘바다’는 부산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수욕장이라는 자원 외에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 콘텐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부산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를 계기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개장하며 국내 마리나 사업을 선도하였다. 하지만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지난 30여 년간 방파제, 계류시설, 편의공간 등의 노후화 및 미비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성도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요트투어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복합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필수 과제가 되었다. 부산이 마리나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등 내수면과 해수면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발달한 나라를 참고하여 마리나 인프라를 영도, 사하, 강서 등의 권역별로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도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텐츠 개발

호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서핑, 다이빙 등 해양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7개 해수욕장을 비롯해 수영강, 낙동강 등 여러 개의 강까지 갖춘 부산 역시 자연환경 면에서는 호주에 못지않다. 다만 해운대와 광안리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아쉬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 콘텐츠에 부합하는 것이 해양레저·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안리의 SUP, 송정의 서핑처럼 특정 종목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대포 일원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약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인공서핑 시설, 해수풀장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향후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와 축제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단지가 하나의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

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만큼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리나의 경우, 북항 마리나는 계류시설 복구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문제가 없는 체형 공간을 조성하고, 해운대 마리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완, 을숙도 마리나는 복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3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북항 마리나 아쿠아시설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한 후,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일조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시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은 법, 제도, 행정지원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중심의 전담 부서 및 정책자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로써 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바다라는 자원에 행정과 산업, 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진 복합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함께 뛰며 어울리는 다문화가족 화합의 장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장완주



지난 7월 26일 부산시체육회관 4층 대체육관에서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뭉치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부산시체육회관 대체육관은 행사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번 운동회는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쟁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큰 공 굴리기, 줄다리기, 이 어달리기 등 협동심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운동회 종목은 물론, 다문화가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힘을 모아 경기에 참여했고, 서로를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경기에 참여한 부모들과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한 팀을 이뤄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함께

땀을 흘리고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나눴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이들을 응원하는 박수와 함성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 화목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스포츠를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이 다문화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진 화합의 물결

2026 부산스포츠클럽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

제6기 부산스포츠키자단

이승빈



지난 7월 24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는 '2026 부산스포츠클럽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이 진행됐다. 부산스포츠클럽 학생들은 서핑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며 바다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

부산스포츠클럽이 진행한 이번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참가했다. 부산스포츠클럽은 육상, 롤러, 탁구, 수영,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 교육에는 양궁부를 제외한 학생들이 참여해 해양스포츠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 아침부터 집결지에 모인 학생들은 송정해수욕장 도착 후 본격적인 체험 준비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먼저 서핑 수트로 갈아입은 후 해양안전교육과 서핑 이론교육에 참석했다. 강사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바다 위 도전을 앞두고 기대감에 들뜬 학생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날 송정해수욕장은 해가 짙은 날씨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체험에 나섰다. 백사장에서 기본자세와 균형 잡는 법, 보드 위에 올라서는 법 등을 익힌 학생들은 이후부터 하나 둘 바다에 입수하며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했다.

서핑 체험은 실력에 따라 조를 나누며 이뤄졌다. 서핑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특별한 도움 없이 능숙하게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파도를 즐겼고, 처음 도전하는 학생들은 강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체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넘어질까 긴장하던 학생들도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보드 위에 올라서

는 데 성공하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학생들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핑 체험과 함께 비치축구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백사장에서 함께 뛰고 웃으며 서핑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경험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체험 소감을 나누고 다시 바다로 향할 차례를 기다리는 등 현장에는 학생들의 활기가 가득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서핑이 무서웠지만 몇 번 타보니 자신감이 생겼고 정말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어린 시기에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종목과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더 넓은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은 단순한 여름 체험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송정의 푸른 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선물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멈추지 않는 세 번의 도전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철인3종

수영, 사이클, 달리기의 공통점은 모두 상당한 지구력과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세 종목을 모두 완주해야 비로소 하나의 경기가 끝나는 스포츠가 있다. 바로 ‘철인3종’이다. 물살을 가르고, 자전거 위에서 쉼 없이 페달을 밟고, 두 발로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하나의 경기이자 한 편의 도전이 된다.

철인3종의 뿌리, 트라이애슬론

철인3종의 원어는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이다. 라틴어로 ‘3가지’를 의미하는 ‘tri’와 ‘경기’를 의미하는 ‘athlon’이 결합된 말로, 수영·사이클·달리기 세 종목을 연달아 치르는 멀티 스포츠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인3종은 원칙적으로 트라이애슬론의 장거리 코스를 일컫지만, 대부분 철인3종과 트라이애슬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철인3종의 뿌리인 트라이애슬론은 1972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변호사 데이비드 페인이 10km 달리기와 0.5마일(1마일=약 1.6km) 수영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한 것에서 출발했다. 2년 뒤인 1974년에는 샌디에이고 육상클럽의 두 회원이 혹독한 육상 훈련을 대체할 운동을 고민하다 바이애슬론에 사이클링을 더한 경기를 기획했다. 미션 베이(Mission Bay)에서 열린 이 대회는 2.8마일 달리기, 5마일 사이클링, 0.25마일 수영, 2마일 달리기, 0.25마일 수영으로 치러졌으며, 오늘날 최초의 현대 트라이애슬론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1977년 2월, 미국 해군 중령 존 콜린스는 와이키키 해안에서 3.9km 수영, 오후우섬 180.2km를 일주하는 사이클링, 호놀룰루까지 이어지는 42.195km 마라톤, 이 세 종목을 하루 만에 완주하는 사람을 ‘아이언맨(Iron Man)’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듬해 실제

경기로 이어졌으며, 하와이 카일루아-코나에서 열리는 ‘아이언맨 하와이’ 대회의 시작이 됐다. 이후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으며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로 발전했다.

국제무대로 도약한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2년 하와이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22살이었던 줄리 모스는 경기 내내 1위를 지키다 결승선을 약 3km 남겨둔 지점에서 탈수 증세를 보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TV를 통해 방송된 줄리 모스의 극적인 도전은 트라이애슬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는 이후 ‘철인3종의 전설’로 불리게 됐다.

이처럼 트라이애슬론의 인기가 확산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88년 트라이애슬론을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89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이 창설됐고, 제1차 ITU 총회에는 전 세계 30개국의 연맹이 참가하며 국제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최초의 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려 40개국 8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자료 출처: 대한철인3종협회, 월드 트라이애슬론, 올림픽 홈페이지, 서울시 생활체육포털

참가했다. 당시 기존 종목이던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차용하여 총 51.5km 코스를 구성했는데, 1994년 파리 IOC 총회에서 이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출전하는 혼성 계주가 정식 종목으로 추가됐다.

한국의 철인3종

1987년, 일본 대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김자현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이 창립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국내 최초의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리며 한국 트라이애슬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90년 ITU에 가입했으며, 1991년에는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ASTC) 창설 멤버로 참여했다.



철인3종의 세부종목

먼저 슈퍼 스프린트는 입문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다. 스프린트는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경기로 활용된다. 슈퍼 스프린트와 스프린트는 대회 운영 방식에 따라 종목별 거리가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스탠다드는 올림픽에서 채택되는 공식 경기 거리로, ‘올림픽 코스’라고도 불린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코스를 기준으로 남자 금메달리스트가 1시간 43분 33초, 여자 금메달리스트가 1시간 54분 55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 올림픽에 도입된 혼성 계주의 경우, 각 선수가 300m 수영, 6.8km 사이클, 2km 달리기를 릴레이 방식으로 완주해야 한다.

1994년에는 제주에서 제3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가 개최됐는데, 이는 제주가 트라이애슬론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됐으며, 2000년 국제 아이언맨 대회 유치를 계기로 그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

국제무대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 허민호(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는 2008년과 2009년 ITU 세계선수권대회 주니어 남자부에서 2년 연속 7위에 오르며 한국 트라이애슬론의 경쟁력을 알렸다. 이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트라이애슬론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6년에는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과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통합되며 대한철인3종협회가 출범했다. 현재 대한철인3종협회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유망주를 지원하며 한국 트라이애슬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프 코스는 풀 코스의 절반이며, 풀 코스는 트라이애슬론 종목 중 가장 긴 거리로 ‘아이언맨 코스’라고 불린다. 풀 코스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면 국제 공인 ‘아이언맨’ 호칭을 받는다.

구분	수영	사이클	달리기
슈퍼 스프린트	250m ~500m	6.5km ~13km	1.7km ~3.5km
스프린트	~750m	~20km	~5km
스탠다드	1.5km	40km	10km
하프	1.93km	90.1km	21.1km
풀	3.86km	180.2km	42.195km



철인3종의 경기 진행 방식

철인3종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 순으로 연속 진행된다. 각 종목 사이에는 *‘바꿈터(Transition Area)’가 마련되어 있으며, 선수는 이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물품을 챙기고 복장을 정비한 뒤 다음 종목을 준비한다. 수영에서 사이클, 사이클에서 달리기로 전환할 때 바꿈터를 이용하며, 종목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도 경기 기록에 포함된다.

수영은 주로 바다, 강, 저수지 등 야외 수역에서 진행된다. 수영을 마친 후에는 T1(Transition Area 1)으로 이동해 사이클 장비를 착용하고, 사이클 구간이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후 T2(Transition Area 2)에서는 자전거를 거치하고 헬멧을 벗은 뒤 달리기 구간을 시작한다.

* 바꿈터

- 다른 선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방해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 T1에서부터 사이클을 타고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철인3종의 경기 규칙

① 수영

- ▶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 ▶ 경기 도중 부표나 심판 보트에 매달려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 규정된 영법 없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다.
- ▶ 15.9도 이하의 물에서는 보온복을 의무착용해야 한다.

최대 수중 체류 시간

수영거리	엘리트, U23, 주니어, 유스	동호인
300m 이내	10분	20분
301m~750m, 31도 미만	20분	30분
301m~750m ,31도 이상	20분	20분
751m~1,000m	25분	50분
1,001m~1,500m	30분	1시간 10분
1,501m~3,000m	1시간 15분	1시간 40분
3,001m~4,000m	1시간 45분	2시간 20분

철인3종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부분의 경기가 바다와 강, 호수 등 자연 수역에서 열리는 만큼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철인3종만의 매력이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물과 땅을 가로지르며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은 다른 어떤 스포츠와도 비교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다 끝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철인3종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경험하게 된다.

② 사이클

- ▶ 자전거를 타거나 끌고 이동할 수 있다.
- ▶ 단, 자전거 없이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사이클 코스는 대회에 따라 *뒤따르기 허용/불허용으로 나뉜다.

* 뒤따르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선수 뒤에서 붙어서 경기를 하는 행위로, 뒤따르기가 금지된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에 들어갈 경우 장거리 코스에서는 20초 안에, 스탠다드 혹은 스프린트 코스에서는 15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③ 마라톤(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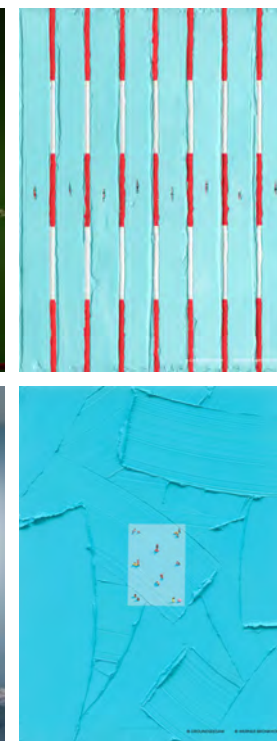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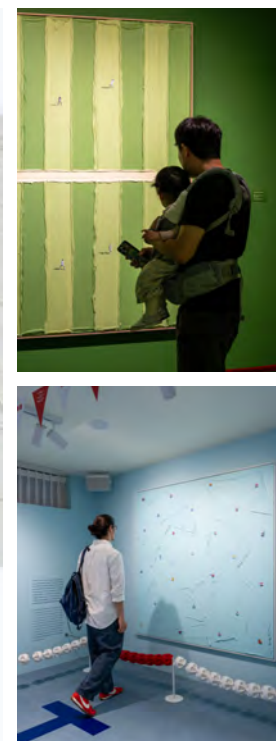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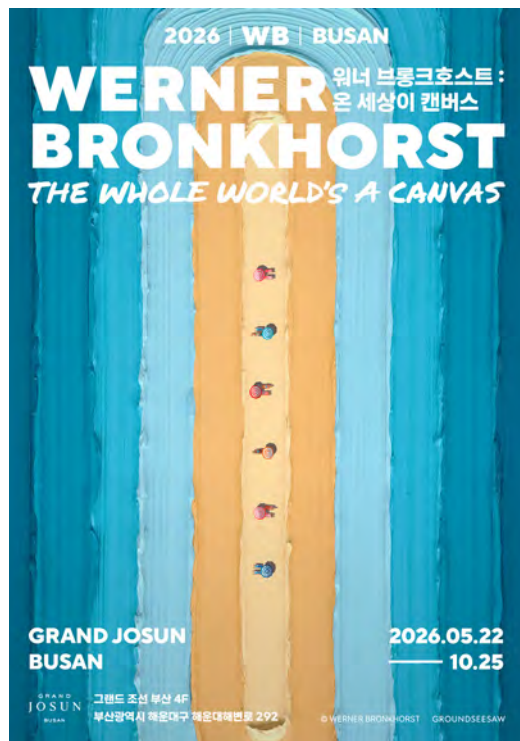
- ▶ 뛰거나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나 기어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 몸통(상체)이 결승선 부분을 통과해야 완주로 인정된다.

온 세상이 캔버스, 움직임이 예술이 되다

전시 <위너 브롱크호스트 부산전>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순간, 푸른 잔디 위에서 공을 향해 집중하는 순간, 물속으로 뛰어드는 짧은 찰나까지. ‘위너 브롱크호스트’는 바로 그 순간을 캔버스 위에 담아낸다. 작은 인물들이 모인 거대한 세계 속에서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일상의 아름다움이 교차한다. <위너 브롱크호스트 부산전>에서 우리는 평범한 하루가 예술이 되는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자료 제공: 그라운드시소



자연 속 평범한 하루가 하나의 풍경으로

‘위너 브롱크호스트(Werner Bronkhorst)’의 작품 속 인물들은 서핑과 스키, 테니스, 골프 등 다채로운 스포츠를 즐기며 거대한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 거친 질감을 살린 캔버스 위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미니어처인 듯 작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익숙한 움직임과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작업은 ‘일상 속 특별함’을 발견하게 한다. 작가의 대표 컬렉션인 ‘WET’ 섹션은 시원한 색감으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청량감을 선사한다. 서핑과 항해에서 느껴지는 역동적

인 움직임부터 깊은 물속에서 느끼는 고요함까지 물이 가진 상반된 성질을 캔버스에 풀어내며 다양한 감정의 층위를 표현한다. 파도를 타며 느끼는 자유로움, 낯선 환경에 뛰어드는 긴장감, 물속에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경험과도 닮았다. ‘FORBIDDEN GRASS’ 섹션에서는 초록이 완전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담아냈다. 골프, 테니스 등을 소재로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쾌함을 더한다.

전시명

위너 브롱크호스트 부산전

기간

2026.05.22(금) ~
2026.10.25(일)

장소

그랜드 조선 부산
4F 전시장

균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위너 브롱크호스트의 예술 세계는 자연 속 인간의 움직임을 담아낸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911 WHAT’S YOUR EMERGENCY’ 섹션으로 들어서면 그간 알려진 작품 세계와 결이 다른 작품들을 마주하게 된다. 거칠고 쉽게 번지는 목탄을 활용한 흑백 작품들. 그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자동차를 매개로 욕망과 꿈, 돈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을 묵직하게 담아냈다. 마지막 전시관인 ‘CRACK’ 섹션은 균열과 흔적, 압력과 표면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공간과 시간 속 경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강렬한 햇볕에 달아오른 백사장과 경기장, 공이 부딪히는 순간의 긴장감 등이 두껍고 거친 질감의 캔버스 위에서 감각적으로

표현된다. 올해 초 두바이에서 전시된 이후 아시아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컬렉션이다.

이번 전시는 작품 감상을 넘어 작품의 테마와 색감을 그대로 확장한 듯한 공간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초록빛 자연을 닮은 공간부터 푸른 물결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까지, 작품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전시장은 관람객이 작품 속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으로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캔버스가 된다. 작은 인물들이 펼쳐내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6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전국소년체전, 동계체육대회 입상 우수선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꿈나무 선수들의 성장과 미래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24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2026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산 대표 꿈나무 선수 전원에게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부산선수단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39개의 메달을 획득해 참가 이래 최다 메달을 획득했으며,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19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체육 인재로의 성장을 응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육성사업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체육의 미래를 이끌 유망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부산 다문화가족 380여 명,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7월 26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인 ‘202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다문화가정 380여 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 대상의 한판 뒤집기, 미니공 던지기, 주사위 릴레이에서는 아이들의 힘찬 응원과 웃음이 이어졌으며 협력 링 통과 게임, 바람 특공대, 기차게도 놀이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모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승패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체육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진행

직무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 위한 소양·실기교육 실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7월 10일 동래구 사직동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3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진행했다.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부 직무교육은 ‘MBTI로 풀어보는 우리 조직 소통법’을 주제로 커리어 다움 정희영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4층 월계관에서 진행된 2부 실기교육에서는 지도자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단체 중

목을 함께하며 협동심을 기르고 활발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부산지역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여러분은 지역 체육 발전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 및 2026 스포츠 인권 교육 개최

부산선수단 출정식 개최, 선전 결의와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7월 8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직원과 실업팀 선수단 및 시·직장운동경기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결의를 다졌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선수단은 정정당당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업팀 및 시·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

으로 ‘2026 스포츠 인권 교육’도 개최됐다. 교육은 선수와 지도자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and 인권감수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경기력 향상과 함께 선수들이 존중받는 스포츠 환경 조성 and 인권 중심의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부산체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체육회

2026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개최

지난 2026년 7월 25일(토) 경남 합천군 일원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합천폴헤븐워터월드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물놀이를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가족캠프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구체육회

대한체육회장 유공자 표창 수상

지난 7월 27일(월) 서구체육회 소속 김부회(부산광역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겸 서구체육회 이사), 이다감(서구국학기공협회장), 장재환(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장) 3명이 '대한체육회 창립 106주년 기념 포상식'에서 체육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체육유공자 15명 중 서구체육회에서 3명이 선정되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진구체육회

2026년 부산진구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7월 23일(목)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부산진구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수상시설과 체험활동을 즐기며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시간을 보냈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제14회 동래구 배구협회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

동래구 배구협회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가 지난 7월 4일(토)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편,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이어갔다. 참가 선수들은 팀워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한편 동래구배구협회는 '제21회 여성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경기력을 입증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청소년체련교실 스쿠버다이빙 체험 캠프 운영

동구체육회는 지난 7월 26일(일) 송도레포츠센터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6 청소년체련교실 스쿠버다이빙 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스쿠버다이빙 기초교육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수중 체험을 통해 해양레포츠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동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도구체육회

제16회 태종대 흑서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지난 7월 19일(일) 태종대 유원지 순환도로에서 열린 '제16회 태종대 흑서기 전국 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 1,98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7km, 14km, 21km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태종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달리며 완주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태종대와 영도구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남구체육회

2026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워터파크 체험

남구체육회는 지난 7월 12일(일)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2026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워터파크 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구 관내 가족들이 물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건강한 여가활동과 가족 화합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남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가족 친화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체육회

2026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 개최

지난 7월 12일(일)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북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과 장비 착용을 마친 뒤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플라이피시,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바이퍼, 밴드웨건, 팡팡, 뉴디스코, 블롭점프 등 다양한 수상 레저 기구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운대구체육회

2026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석

해운대구체육회 지도자들은 지난 7월 10일(금)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2026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에 참석했다. 오전에는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함양하였으며, 오후에는 종목별 실기교육에 참여하여 현장 지도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사하구체육회

제20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7월 4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20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사하구 관내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품새와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으며,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파워플레이 정신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포츠맨십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수영구체육회

수영구궁도협회장배 궁도대회 개최

‘수영구궁도협회장배 궁도대회’가 지난 7월 19일(일) 수영정(궁도장)에서 동호인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식과 선수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그간 쌓아온 기량을 발휘하며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경기장에는 과녁을 향한 선수들의 진지한 모습과 명중 순간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관중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수영구 궁도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사상구체육회

다문화가정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는 다문화가정의 건강 증진과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다문화가정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4일(토)부터 오는 8월 2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예정이며, 부모와 자녀의 클라이밍 체험을 지원하는 가족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지도자의 교육을 바탕으로 체력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한편,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어린이·청소년 체육교실 개강

금정구체육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체육교실을 개강했다. 지난 7월 13일(월) 진행된 수강생 모집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체육교실은 연령별로 어린이 대상의 탁구, 스쿼시, 음악줄넘기, 골프와 청소년 대상의 탁구, 스쿼시, 골프, 다이어트 킥복싱 수업으로 운영된다. 금정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제구체육회

2026년 연제구 청소년체련교실 해양스포츠 캠프 운영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금)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관내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연제구 청소년체련교실’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패들보드,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여름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한편 서로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기장군체육회

2026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7월 11일(토) 울산 나사해수욕장에서 ‘2026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관내 26가족, 64명이 참여해 해양스포츠 체험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활동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해양레저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가족 간 화합을 도모했으며, 기장군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신설프로그램 셔플댄스 개강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7월 신설프로그램 셔플댄스를 개강했다. 앞서 개설된 셔플댄스 프로그램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추가 개설된 셔플댄스 B반은 공개수업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등록 첫날 정원이 모두 마감돼 확장된 다목적실에서 35명까지 회원을 모집했다. 다목적실은 기존 체능단 교실과 문화관을 하나의 교실로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환경 개선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최근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실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수질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관리와 안전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4학년 학생들이 4주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건강관리 분야의 실무를 익히고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 응대 등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용객들과 소통하며 사회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실습은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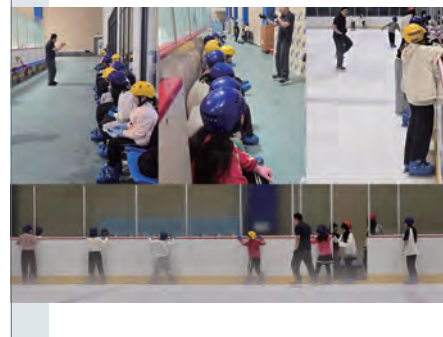


제3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7월 3일(금), 10일(금) 2일간 제3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 수익을 부산 테니스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환원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025년 7월과 2026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전국 유일의 야간 대회로 직장인들도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2026년부터는 연 3회 개최하여 부산 테니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5

부산실내빙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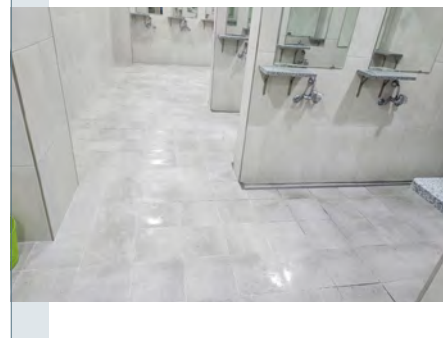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대상 스케이트 체험수업 진행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7월 29일(수) 주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케이트 체험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아이들이 빙상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며 기초 스케이트 기술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참여 아동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빙상 스포츠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6

신평장림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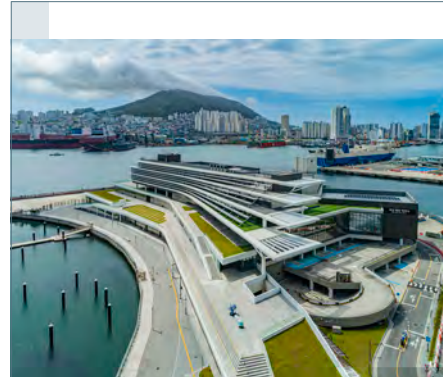


사위장 바닥 미끄럼방지 코팅 작업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이용객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사위장 바닥 미끄럼방지 코팅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사위장 바닥의 미끄러움을 예방하고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미끄럼 방지제를 시공해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개선 활동을 추진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07

북항마리나스포츠센터



부산광역시체육회, 북항마리나스포츠센터 운영 최종 수탁운영자 선정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한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최종 수탁운영자로 선정됐다.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6개 레인의 수영장과 영남지역 최고 수심인 24m의 다이빙풀을 갖춘 공공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이용이 이어져 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시설 안전점검과 개·보수 등을 마친 시설을 오는 8월 24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영장 운영시간 확대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년 카누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성료

대한민국 카누의 미래를 이끌어갈 ‘2026년 카누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이 7월 28일부터 부산 서낙동강카누훈련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을 대비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시됐다.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대한민국 카누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로, 체계적인 기술훈련과 체력훈련, 경기 운영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기 위해 값진 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내 최고의 카누 훈련환경을 갖춘 부산 서낙동강카누훈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제대회에 대비한 실전 중심의 훈련으로 운영됐다.

카누연맹은 이번 하계 합숙훈련을 계기로 미래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카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 Mr. & Ms. Korea 부산 대표 선발전 개최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는 지난 7월 29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Mr. & Ms. Korea 부산 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선발전에는 고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총 1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으며, 5심제로 진행된 심사를 통해 선수들의 강점과 보완점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참가선수 18명 전원이 부산 대표로 최종 선발돼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Mr. & Ms. Korea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선수들은 선발전에서 받은 심사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훈련과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며 전국 무대에서의 선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 전문 선수반, 제48회 부산광역시 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남자 초등부 종합 준우승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 전문 선수반이 제48회 부산광역시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에 출전해 남자 초등부 종합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선수들은 개인 및 단체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지속적인 전문 훈련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과 기록이 향상되었으며, 실제 대회 경험을 통해 경기 운영 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 선수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망선수 발굴과 전문선수 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 인재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해강고등학교 요트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윈드서핑 종목으로, 보트 하단의 날개인 '포일'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물 위를 달리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 ① IQFoil ② 딩기요트 ③ 카누

2

지난 5월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는 선수들의 노력으로 총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을까요?

- ① 6개 ② 9개 ③ 12개

3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연달아 진행하는 종목으로, 각 종목 사이에 '바꿈터(Transition Area)'를 이용하며 종목 전환에 걸리는 시간까지 경기 기록에 포함하는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 ① 철인3종 ② 근대5종 ③ 수구

『부산체육』
제92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부산시설공단 2. ③ SUP 3. ② 조정

당첨자

진*정(0759) 신*울(8148) 김*실(1589) 이*연(9149) 이*욱(9149)
이*규(7080) 왕*자(0385) 이*기(2376) 이*채(5648) 정*음(0516)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해강고등학교 요트부에는 백가연, 김선우, 최준환 선수 등 3명의 선수가 윈드서핑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종목은 시속 55~65km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가 특징이며, 보트 하단에 달린 날개인 '포일'을 활용한다.

<금빛 훈련일지> 8~11쪽

2
힌트

부산체육중학교 역도부의 김민승, 왕서영 선수는 각각 인상·용상·합계를 모두 석권해 대회 3관왕이 되었다. 여기에 조서는 선수가 금·은·동 메달을 1개씩 추가하면서 무려 ○개의 메달을 따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푸른바다, 큰 꿈> 16~19쪽

3
힌트

○○○○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을 연달아 치르는 멀티 스포츠다. 경기 중에는 수영에서 사이클, 사이클에서 달리기로 종목을 전환하는 '바꿈터'를 이용하며, 종목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도 경기 기록에 포함된다.

<종목소개> 38~41쪽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8.14.(금) ~ 8.31.(월)

응모 방법

네이버 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94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폼 바로 가기

이벤트 응모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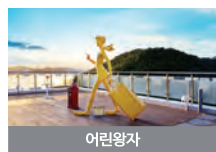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www.eunsan.co.kr

銀山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됐다!됐다!잘 된다!더 잘 된다!



회장 양재생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글로벌 종합물류, 은산해운항공

OCEAN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EXPORT PACKING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 중량 / 벌크화물

전 화 : 051-441-9966 / 02-772-9966

팩 스 : 051-441-9969 / 02-773-9969

E-mail : info@eunsan.co.kr



양산터미널



신항만독산터미널



신항만화전터미널



신항만동동터미널



경인터미널



인천국제공항터미널



은산수출포장



은산로직스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파견·임용·근로·계약·고용·채용·인사·조직·관리·개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건설기업

동원개발그룹은 주거문화, 금융, 레저산업 및 수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입니다.

DW

Since 1975년 | 전국 167차 사업장 87,000세대 공급

49년 쉬지 않고 달려온 신용제일의 기업 동원개발!
동원개발이 지으면 명품이 됩니다!

SKY.V 부산북항

SKY.V 센텀시티

SKY.V 우정역신

부산 냉정역 비스타동원 분양문의 051)256-4500



2월 29일
OPEN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분양문의 052)922-5000



4월
OPEN
예정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초우량 1군 종합건설기업!

AAA

주최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AAA
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AA+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AA

전국
87,000여
세대 공급

부채비율 39.8%
탄탄한
1군건설사
(2022년)

48년 연속
흑자기업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코스닥상장
우량기업
(1994년 상장)

국내 최초
주택사업분야
금탑산업훈장
(1995년)

DW 동원개발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 복 만

동원개발그룹

동원로얄컨트리클럽

동원제일저축은행

동원해사랑

동원문화장학재단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부품



스포츠패션ODM



소재



종합무역



화학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